

사회

# 택시 분실 스마트폰 되찾기 힘드네

## 일부 양심불량 기사들 중고폰 매매상들에 팔아



해빙기 도로 정비  
광주시 북구청 건설과 직원들이 26일 오후 해빙기를 맞아 균열이 생기거나 움푹 파인 도로를 정비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 올들어 신고 60건 중 1건만 반환

#김모(30·회사원)씨는 지난 22일 새벽 광주시 서구 삼우지구에서 운암동까지 이동한 택시에서 갤럭시S2 스마트폰을 분실했다. 택시에서 내린 후 채 5분도 안 됐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다. 김씨는 광주택시조합 분실물 센터에 연락했지만 4일째 답이 없다. 결국 김씨는 남은 할부금과 위약금 등 50만원을 지불하고 새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정모(43·자영업)씨도 지난 17일 택시에 스마트폰을 놓고 내렸다. 스마트폰에만 거래처 연락처와 거래 정보 등을 저장해둔 정씨는 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등 유무형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부 양심불량 택시기사들이 승객들이 택시에서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되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고가인 스마트폰을 택시기사들이 불법 중고폰 매매상들에게 되팔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광주시택시운송조합 분실물 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택시에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으며 분실신고된 사례는 모두 60여건에 달한다. 반면 택시에서 스마트폰을 주웠으며 찾아

가라고 글을 올린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다. 택시에서 두고 내린 스마트폰은 대부분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

다.

1대당 90만~100만원에 판매되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중고폰으로 내놓으면 최소 5만~20만원 가량을 손에 쥌 수 있어서 택시기사가 자진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위치추적 기능도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버리면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벌이가 시원찮은 택시기사들에게 분실 스마트폰은 '로또'로 여겨진다.

지난해 11월에는 광주지역 택시기사들에게 분실·도난 스마트폰 200여대를 사들여 중국으로 밀수출한 일당과 팔아넘긴 택시기사들이 붙잡히기도 했다. 광주 삼우지구, 용봉지구 등 유흥가에서는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물지도 따지지도 않고 중고 스마트폰 매입' 전단지들을 뿌리는 사람들도 등장했다. 인터넷 등지에는 중고폰만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사이트도 성황이다.

택시기사 최모(43)씨는 "중고폰을 넘기면 손쉽게 현금을 쥌 수 있는데 누군들 한번쯤 생각해보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의 경우 중국 등지에서 유심칩만 바꾸면 사용이 가능하고, 국내가보다 높게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실 신고해도 찾기 힘들기 때문에 보편에 가입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충고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니원침 (8531) 김종두



# “생계형 위법건축물 과잉단속 말라”

## 광산구 상인들, 구청 무더기 행정처분에 반발

### 구청 “적법 절차 밟았다”

광주시 광산구가 신시가지의 위법건축물에 대해 무더기 행정처분하자 해당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의를 제기해 갈등을 빚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신가·신창·수완지구 지역 상인들은 광산구청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위법건축물 일제단속을 하면서 지역 상권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산구 상권활성화대책위원회(이하 상권대책위)는 26일 “광산구가 지난 2010년부터 ‘명품도시건설’이라는 명분으로 실시중인 신가·신창·수완지구 등 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위법건축물 일제 단속때문에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특정 지역에 대한 단속으로 인해 영세상인들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세금포탄을 맞고, 재산 압류와 부동산가격 폭락, 거래중지 등으로 지역상권이 붕괴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갈등으로 세입자가 소중한 목숨을 끊고 원상복구비용을 내지 못한 세입자가 야만도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산구의 단속이 타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생계형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잉단속, 행정절차상의 문제 등을 안고 있다”며 “영입허가금지 등 과도한 행정조치로 빈

상가가 늘면서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지난해 광산구 전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고 명백한 위법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 행정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해 지역 전체에서 위법건축물 2000여건을 적발했으며 신가·신창·수완지구 내에서는 1000여건을 적발 행정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이 지역 주민 109명은 광주시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해 27일 재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양측의 추가 대화를 위해 일정을 연기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교육구입비 지원조례 추진 전북도 교육청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26일 교육구입비의 과격적인 절감을 위해 교육구입비 지원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조례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전원에 교육구입비 또는 피복비 10만원씩을 지원하되 대상 학교는 교육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학교와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로 한정했다. 교복을 착용하면서도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다.

/전북취재본부 = 김철수기자 knews@

### 응급처치 너무 아파 폭력 휘둘러

○30대 남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흐르는 코피가 멈추지 않아 응급실을 찾았다가 애꿎은 의사와 간호사에게 주먹을 휘둘러 경찰서행.

○26일 광주광역시경찰에 따르면 황모(36)씨는 이날 새벽 2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윤모(38)씨의 팔을 비틀고 간호사 양모(여·24)씨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는 것.

○황씨는 경찰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아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처치가 너무 아파서 슬픔에 나도 모르게 폭력을 행사한 것 같다”며 뒤늦은 후회.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무서운 고교생들

## 인터넷 게임서 만난 여중생 번갈아 성폭행

### 광산경찰, 10대 들 검거

인터넷 게임에서 만난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고등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역시경찰은 26일 권모(17)군과 차모(16)군을 특수강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권군 등은 지난 10일 새벽 1시께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모 아파트 권군의 집에서 A(14)양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권군은 인터넷 게임에서 알게 된 A양이 만나주지 않자 “내 친구들에게 말해 왕따시키겠다”고 협박해 약속을 정하고 자신의 중학교 후배인 차군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양에게 게임을 해 준 사람이 술 마시기 벌칙을 정하고 A양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만취 휴학생 사망

지난 24일 광주시 동구 한 골목에서 재학시절 가입했던 동아리 모임에서 과음한 뒤 집에 가던 이모(26·광주 모대학 휴학생)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26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이씨가 동아리 모임에 참석해 만취상태에서 선배 구모(30)씨 등과 함께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다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경찰은 이씨가 급성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 구청 “적법 절차 밟았다”

광주시 광산구가 신시가지의 위법건축물에 대해 무더기 행정처분하자 해당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의를 제기해 갈등을 빚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신가·신창·수완지구 지역 상인들은 광산구청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위법건축물 일제단속을 하면서 지역 상권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산구 상권활성화대책위원회(이하 상권대책위)는 26일 “광산구가 지난 2010년부터 ‘명품도시건설’이라는 명분으로 실시중인 신가·신창·수완지구 등 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위법건축물 일제 단속때문에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특정 지역에 대한 단속으로 인해 영세상인들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세금포탄을 맞고, 재산 압류와 부동산가격 폭락, 거래중지 등으로 지역상권이 붕괴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갈등으로 세입자가 소중한 목숨을 끊고 원상복구비용을 내지 못한 세입자가 야만도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산구의 단속이 타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생계형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잉단속, 행정절차상의 문제 등을 안고 있다”며 “영입허가금지 등 과도한 행정조치로 빈

상가가 늘면서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지난해 광산구 전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고 명백한 위법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 행정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해 지역 전체에서 위법건축물 2000여건을 적발했으며 신가·신창·수완지구 내에서는 1000여건을 적발 행정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이 지역 주민 109명은 광주시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해 27일 재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양측의 추가 대화를 위해 일정을 연기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교육구입비 지원조례 추진 전북도 교육청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26일 교육구입비의 과격적인 절감을 위해 교육구입비 지원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조례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전원에 교육구입비 또는 피복비 10만원씩을 지원하되 대상 학교는 교육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학교와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로 한정했다. 교복을 착용하면서도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다.

/전북취재본부 = 김철수기자 knews@

### 응급처치 너무 아파 폭력 휘둘러

○30대 남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흐르는 코피가 멈추지 않아 응급실을 찾았다가 애꿎은 의사와 간호사에게 주먹을 휘둘러 경찰서행.

○26일 광주광역시경찰에 따르면 황모(36)씨는 이날 새벽 2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윤모(38)씨의 팔을 비틀고 간호사 양모(여·24)씨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는 것.

○황씨는 경찰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아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처치가 너무 아파서 슬픔에 나도 모르게 폭력을 행사한 것 같다”며 뒤늦은 후회.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벌침 주의보’

“정력에 좋다” 속설에 유혹 무면허 시술 50대 혼수상태

벌침(봉독 약침)이 면역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술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불합이 침구사를 찾은 50대가 혼수상태에 빠졌다.

평소 어깨 통증을 호소해 온 조모(56)씨는 지난 2월7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무면허 침구사를 찾아 벌침을 맞았다. 그러나 알레르기 검사없이 시술

받은 조씨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등 과민성 쇼크로 혼수상태에 빠졌다.

광주지검은 26일 조씨를 혼수상태에 빠뜨린 무면허 시술업자 박모(46)씨를 의료법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벌침 시술은 일반 벌의 독을 정제한 제품의 용량을 조절해 사용해야 하며, 시술 전 반드시 알레르기 검사를 하는 등 전문 의료인에게

받아야 한다고 한의사들은 입을 모은다.

류성룡 경희한의원은장은 “봉독 약침은 주로 관절·척추 질환에 시술된다”면서 “무면허 업자들이 환자를 끌기 위해 정력에 특효인 것처럼 선전하지만, 이는 속설이며 전문가들의 시술을 받지 않으면 자칫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우리가족의 건강은 휘나핫이 지킨다

무릎찢질, 허리찢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물없이도 할수있는 휘나핫 반신욕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 채 사우나를 즐길수 있고, 편히 앉아서 TV나 신문 등을 볼수도 있어 최근 획기적인 사우나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부모님, 부부는 물론 자녀 공부부 하면서 피로를 풀수 있도록 만들어져 온가족이 함께 사용할수 있습니다.

“머리는 차게하고 하체는 따뜻하게”라는 한의학에서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 냉기가 빠지고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몸속(체온)상승되며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이러한 원리를 응용한 휘나핫 반신욕기는 가정에서 쉽게 물없이(특허특제10-096707호 발명의명칭:세라미전기발열체 및 그 제조방법)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드스크 B.C.P내장하여 450℃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 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 특별한일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 것입니다.(2020년까지). 시중에 유사품 주의하시기바랍니다. 반드시 휘나핫을 확인하세요.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경영 을 검색하세요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지원모집

★ 휘나핫 반신욕 이렇게 하자

휘나핫 반신욕기는 하루에 아침이나 저녁 본인 편리한 시간에 1-2회정도 하는게 적당하다. 면지, 면티, 면안장 착용 후 휘림트 중탕을 종이컵 한컵과 따뜻한물 한컵복용한 후 반신욕을 시작한다(약30~40분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적당하게 온도설정하세요). 반신욕을 한 후에는 바로 샤워를 하지 않고 일정시간(30분~1시간) 체온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다. 샤워를 하지 않아도 땀냄새나 끈적거림이 없어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거나 반신욕 이후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더욱 좋다.

##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면,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증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 강봉서·박충훈 공저 | 북치는마음 | 15,000원

[전국 유명서점 판매중] 전국민 공부합시다! www.successtv.co.kr

문의: 070-7804-5358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난다 / 불임이 치료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 참웃 골드

울담밭

가족 건강 생각하는 당신 마음을 담았습니다. 평안도 맹산 포수들의 비법을 되살렸습니다. 웃샘마을 맹산 울담밭 진액, 그 원료가 더합니다. 게르마늄 광천수로 유명한 삼남리 186미터 원수 사용. 이대째 웃나무를 다룬 사람들이 만들어 냈습니다.

웃에도 고품질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조 주산지를 찾아 해매던 사람이 지하 186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웃을 만들었습니다.

웃에 대한 솔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웃 산업구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웃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웃 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